

혼돈의 시대 속 피워 낸 중국 미술 역사

와래문물 유입 등 혼란이 가져온 中문화 부흥



난처한 동양미술 이야기 4

강희정 지음, 사회평론, 2만5000원

3~6세기의 중국이 어떤 시대인지 바로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설명해 보면 어떨까? 난세의 영웅들이 활약한 삼국시대와 문화의 황금기를 꽃피운 당나라 시대 사이에 놓인 격변기라고 말이다.

사실 이 시기는 중국 학계에서도 오랫동안 안 주목받지 못했다. 보통은 중국의 암흑기 또는 혼란기로 뭉뚱그려 정의되거나 중국이 이민족에게 짓밟힌 치욕의 시대로 간주돼 평가절하되기도 했다.

하지만 '난처한 동양미술 이야기' 4권에서는 전혀 다른 대담을 들려준다. 삼국지의 영웅들마저 자취를 감춘 4세기경, 중국에 들어온 천 북방 유목민들은 중국 영토의 절반을 점령하며 중국 사회를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이러한 현실이 한쪽에게 불러일으킨 반향은 어마어마했다. '천하의 중심은 중국

이며, 중국의 중심은 한족'이라는 오랜 믿음이 산산이 부서진 것이다.

이전까지만 해도 한족은 중원 바깥을 모두 오랑캐라 부르며 업신여겼다. 그러나 이제 변방의 오랑캐가 자신들의 터전에 왕조를 세우는 것을 참혹한 심정으로 지켜보아야 했다. 중원이라는 무대에서 내려와 잔뜩 허약해진 마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려 하는 현실에 맞닥뜨린 것이다.

그러나 이민족이 무너뜨린 이 경계는 패쇄적인 한족 사회에 사고방식의 전환을 요구하며, 오히려 중국에 더없이 찬란한 생기를 불어넣었다. 미술 역시 그 영향권 아래 있었다. 3~6세기는 중국 미술사에서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하고 혁신적인 시기였다.

책은 혼돈의 시대가 빚어낸 눈부신 미술의 향연, 그 경이로운 순간으로 독자를 데려간다.

임유이 기자 lye@skyedaily.com

한강 해치카, 난지공원서도 '씽씽'

10명 탑승 차량 3대 새로 투입
어린이·장애인 등 편의성 높여
망원나들목~캠핑장 6.2km 왕복
반포도 지난해처럼 무료·무휴



서울 마포구 난지한강공원 물놀이장을 찾은 시민·어린이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왼쪽은 한강 순환관람차인 해치카.

연합뉴스·서울시



서울시가 한

강 순환관람차(한강 해치카)를 반포한강공원에 이어 난지한강공원에서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 기간은 두 곳 모두 이달 1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한강 해치카는 지난해 5~11월 반포한강공원에서 시범 운영했으며, 노약자 등 이동 약자를 포함해 총 5만3114명의 시민이 이용하며 호응을 얻었다.

난지한강공원에는 한강 해치카가 총 3

대 도입된다. 한 대당 10명이 탑승할 수 있고 시속 10~15km로 다닌다.

외관은 반포한강공원 한강 해치카와 동일하게 시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해치 캐릭터로 디자인됐다. 차량 내부에는 냉난방 장치와 휠체어와 유아차 적재 공간도 있다.

유동 인구가 많고 한강버스 선착장이 조성되는 망원나들목을 시작점으로 거울분수~수상레포츠센터~BTS숲~물놀이장~젊음의광장~난지캠핑장 구간

에서 왕복 약 6.2km를 달린다.

주중에는 오후 2~8시 30분 간격, 주말·공휴일에는 오전 11시~오후 8시 20분 간격으로 연중무휴 운행한다.

난지한강공원의 한강 해치카 정거장은 모두 인기 있는 여가시설 명소다.

그간 접근성이 떨어져서 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이동 약자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반포한강공원 한강 해치카는 작년과 동

일하게 동작역(2번 출구 앞)~서래섬~세빛섬~서울웨이브 구간에서 왕복 약 7.3km를 달린다.

주중에는 오후 2~8시 20분 간격, 주말·공휴일에는 오전 11시~오후 8시 15분 간격으로 연중무휴 운행한다.

시는 올해까지 한강 해치카를 무료 운행한 후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와 성과 분석 등을 거쳐 유료화 및 지속적인 운영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IT기술경영인이 안부를 묻는 법, 詩

세상을 향해 던진 질문 끝 가장 다정한 응답



나의 조지아 딸

양재현 지음, 마조 켈라슈빌리 사진, 베타북스, 1만5800원

'나의 조지아 딸'은 한국어 시와 조지아어 번역문이 실린 이중언어 시집이다.

1991년 넥서스커뮤니티를 창업해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아태평양 올해의 솔루션상과 대한민국 신지식인 최우수상 등을 수상한 대한민국 1세대 정보기술(IT) 경영인 양재현. 30년 동안 기술 혁신을 이끌어 온 그가 시인이 되어 독자 앞에 섰다.

그는 긴 시간 IT 기술경영인이었다. 빌 게이츠에게 직접 상을 받은 이력은 지금도 업계에서 회자된다. 또 한편으로 그는 연극 무대에 섰으며 밴드에서 노래하고 환경영화를 기획하고 수감 청소년을 위한 예술치유 활동을 이끌었다.

그가 시를 쓰게 된 것이 돌연한 변신인 아닌 자연스러운 흐름인 까닭이다. 그래서일까. '나의 조지아 딸'에는 여전히 시인의 호기심이 가득하다.

빌딩숲에서 다른 곳을 바라보기도 하고 (회사가 15층에 살고 있다) 우주의 신비에 탐닉하며(내 안의 우주) 삶을 반추하고(아침 생각) 자연과 생명의 본질을 들여다보(다기도(풀잎의 열반) 남편이자 아버지로 돌아오고(아즈라엘에게) 아들의 새로운 가족을 사람으로 맞는다(조지아 딸).

양재현에게 시는 삶의 다양한 이면들을 조화시키는 비밀이자 세상을 향해 던진 질문 끝에 도달한 고요하고 다정한 응답이다. 루수단 아브라미제가 말하듯 그는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을 건져 올린다".

기술과 예술, 사유와 표현, 언어와 짐목의 경계를 넘나든 그의 여정이 시로 이어지는 과정이 자못 흥미롭다. 조지아에서 사진과 영화 이론을 공부한 마조 켈라슈빌리가 포착한 풍경은 섬세하면서도 장대하다. 그는 시인의 며느리다. 임유이 기자 lye@skyedaily.com

"인내·믿음으로 위기 극복"... 기독교계 부활절 메시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15일 "대화와 소통을 기반으로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는 내용의 부활절 메시지를 발표했다.

NCCK는 "우리 NCCK는 대화와 소통을 기반으로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이는 극단적으로 생각이 나뉘어 분열과 반목을 일삼고 있는 사회를 향해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김종생 총무명의로 부활절 메시지를 발표했다.

NCCK는 이어 "종교의 이름으로 거친 혐오를 전파하고 있는 이들을 감싸안아 하나님 사랑의 힘을 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을 선

포하는 교회로 거듭나는 2025년 부활절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김종혁 대표회장 명의로 낸 메시지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 탄핵 절차를 진행하면서 심각한 국론 분열과 국격 실추, 실물경제의 파탄으로 어려운 가운데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있다. 원망과 불평과 분노로 이 시기를 허비하지 않아야 한다. 도리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여 인내와 절제와 감사와 믿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북 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NCCK가 북한 교계 단체인 조선그리스도교인맹(조그련)과 발표해 온 부활절 남

북 공동기도문이 올해로 7년째 성사되지 못했다.

NCCK 화해와통일위원회는 부활절 남북 공동기도문을 올해도 조그련과 협의 없이 남측 초안 형태로 발표했다.

화해와통일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도 북측과 소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NCCK와 조그련은 1996년부터 합의를 거쳐 부활절 남북 공동기도문을 발표했으나 2019~2023년 조그련이 사실상 이에 응하지 않아 중단됐다. 지난해에는 NCCK도 중개자 역할을 하는 세계교회협의회(WCC)에 공동기도문(초안)을 조그련에 보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

임유이 기자 lye@skyedaily.com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4 한국교회 부활절 퍼레이드'에서 신자들이 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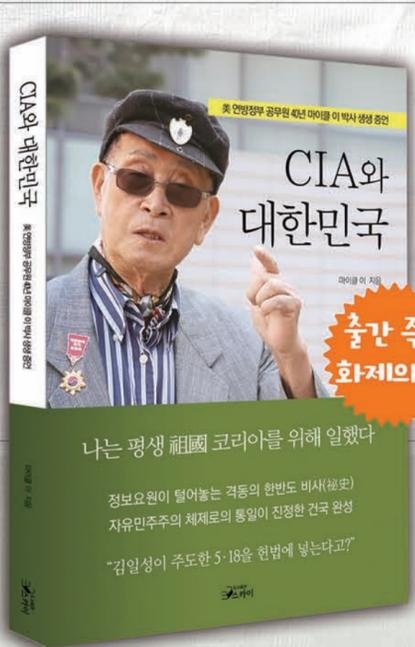
CIA와 대한민국

美 연방정부 공무원 40년 마이클 이 박사 생생 증언

무덤까지 가져가야 하는 CIA 비밀 大공개

정보요원이 털어놓는 격동의 한반도 비사(秘史)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 진정한 건국 완성

김일성이 주도한 5·18을 헌법전문에 넣는다고?



마이클 이 지음 | 336쪽 | 20,000원 | 구입 문의 02)522-6595

북한에서 태어나 50년 살아 본 내 경험으로 마이클 이 박사가 이 책에 기록한 김신조 특공대의 청와대 습격을 비롯해 김현희의 KAL기 폭파, 박정희 사후 김일성이 일으킨 5·18, 황장엽 망명, 장성택 제거 등 북한 관련 증언은 하나도 틀린 게 없다. CIA의 정보력이 놀라울 뿐이다. - 김태산 탈북인·前조선체코합작회사 사장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게 자랑스럽고, 미국 연방정부에서 월급을 받아 가며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는 일을 해 온 것이 무엇보다 행복했다"는 마이클 이 박사의 글은 평생 CIA에 근무하며 체득한 한반도 역사 무대에서 발생한 은밀한 사건들의 이면을 담고 있다. 무장간첩·귀순용사·테러범 등 450여 명을 심문하며 터득한 정보와 90평생 공작어 온 삶의 연륜, 그리고 누구보다 조국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행간마다 철철 넘친다. - 조정진 스카이데일리 대표·북한학 박사

